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 여호수아의 준비

(여호수아 1:1-11)

나라가 어려울 때 진정한 지도자가 그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대행진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만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어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사건 이후 아말렉군이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입성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일했습니다.

### 1. 여호수아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2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옛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만과 시기와 불신과 음욕과 우상숭배의 죄, 우리는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가 옛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옛 사람을 장사 지내야 합니다.

### 2.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을 멸해야 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3절).

가나안 7족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가나안 7족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7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앙이요 불의요 불충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듯 안으로는 우리 자신을 죽어야 하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가나안 7족과 같은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 3.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5절).

하나님께서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고난과 좌절, 갈등과 실패와 수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고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여호수아에게는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성공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철저히 순종한 데 있었습니다.

부요하게 하는 자이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고후 6:9-10).

### 4.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7절).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talk about it)과 주야로 묵상할 것(think about it),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 행할 것(do it)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선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에 기초를 둘 때 가능합니다. 항상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 행동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 5.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도록 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울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순간부터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3일 전 백성들을 향해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도리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맙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하지만 죽음 너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성공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철저히 순종한 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과 두려움 없는 담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초자연적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 중 하나는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약속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믿고 행했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민족 사회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워킹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북한구원을 위한 6.25 세계기도일

## 홍해작전 승전 감사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오늘은 동족상잔의 6.25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56년이 되는 날이며 또한 지난 6월6일 현종일부터 시작된 홍해작전이 마침내 승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승전의 날이기도 하다.

교회는 오늘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을 북한구원을 위한 세계기도일로 선포하여 의와 평강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미워한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김일성 부자의 대를 이은 폭정 아래 60여년의 긴 세월동안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북한에 속히 신앙의 자유가 임하고 김정일의 폭정이 그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된다.

이 일은 지난 5월에 열린 아시아로잔 대회에서 이종윤 목사가 발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한다.

또한 오늘은 지난 6월6일부터 20일간 기도와 말씀의 대상으로 계속된 홍해작전 새벽기도회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전 감사의 날이다.

오늘 홍해작전 마지막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8층 만나홀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감사의 떡 잔치를 가졌다.

그리고 오늘 찬양예배는 홍해작전 승전 감사예배로 드린다. 승전 감사예배 시간에는 어제 마감한 사행시 시상식도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6월25일을 온 세계 크리스찬들이 북한 주민의 구원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날로 바꾸시고 20일간 계속된 홍해작전을 통해 우리교회로 이 민족을 위한 제사장된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가 승전한 은혜 누리도록 기도한다.

# 홍해작전 사행시 입상자

2006 홍해작전 사행시 입상자가 발표되었다. 홍해작전 사행시에는 205명의 성도들이 참가하였으며 대상 3명, 입상 7명을 선정하였다.

심사는 홍해작전 참모와 교역자들이 담당했으며 입상자들의 명단과 대상을 수상한 사행시는 다음과 같다.

<대상>

- 유·초등부 : 김민주(유년부)
- 중·고등부 : 박찬서(고등부)
- 청·장년부 : 유은향(청년부, 6교구)

<입선>

- 유·초등부 : 이준현(초등부)
- 중·고등부 : 최혜진(중등부)
- 청·장년부 : 유은철(청년부), 박명철 집사(1교구)  
이학명 집사(5교구), 박창희 권사(5교구)  
김정란 집사(6교구)

김민주(유년부)

홍해작전 참석하려고  
해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작은 아기의 기도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주세요

박찬서(고등부)

홍수처럼 넘쳐나는 은혜  
해일처럼 밀려드는 축복  
작은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전율을 느껴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유은향(청년부, 6교구)

홍해작전 기도제목 일곱가지 드렸더니,  
해치러던 마귀사탄 일곱길로 도망했네!  
작은 소망 이룬 내맘 삶의 기쁨 총만하니,  
전능하신 여호와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 다음 주일 맥추감사절

주일 | II III부 예배시간에 성찬식  
찬양예배 시간에 교육1국 특별순서 가져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올해 첫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이 어려운 때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한다. 다음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갖

으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고 찬양예배시간에는 교회학교 특별순서로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성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 2006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확정

7월16일(주일) 사랑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뜨거운 여름철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7월16일(주일) 사랑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부서별 일정에 따라 일제히 시작된다.

다. 많은 학생,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자세한 부서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7/24(월)-25(화)	서울교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종윤 목사/박금실 전도사 이종윤 목사/이규정 목사 이종윤 목사/이태훈 목사 이종윤 목사/이성득 목사
중등부 고등부 사랑부 대학부 청년부 디아스포라부 예배다부 신혼가정부	7/31(월)-8/2(수) 7/27(목)-29(토) 7/16(주일) 7/19(수)-22(토) 8/20(월)-23(목) 7/28(금)-29(토) 7/31(월)-8/2(수) 8/17(목)-19(토)	양주시 청소년수업관 예천농원(강원도 평창) 서울교회 성광수도원(강화도) 진위고교(평택) 경포장 콘도(강원도) 청룡회관(김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하나님 나라를 찬양해요 교회, 백성의 위로자 QT 수련회(말씀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교회, 백성의 위로자 거룩한 길 다니리	이종윤 목사/박명철 목사/윤영국 목사 이종윤 목사/한상운 목사/정수길 목사 이태훈 목사/주원순 선생 이종윤 목사/윤영국 목사/서경철 목사 이종윤 목사/장석남 목사 이종윤 목사/윤영국 목사/박광일 전도사 이종윤 목사/이규현 목사 이규정 목사/이성득 목사

# Pilgrims' Vision Trip

10월30일(월)-11월11일(토)까지  
성지순례 나서

우리교회는 교회당 헌당을 한 후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하겠다는 이종윤 목사의 약속을 지키고 또한 신앙을 돈독히 하고자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교회 성지순례단은 Pilgrims' Vision Trip으로 명칭을 정하고 이집트(애굽),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을 방문, 기독교 유적을 돌아보게 된다.

성지순례 중 이종윤 목사의 집례로 선상촛불예배 및 성찬식을 갖고 감동적인 특별 문화행사도 갖는다.

1인당 경비는 약 299만원이며 7월말까지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서울교회 성지 순례단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기 바란다.



CBS 시청자 대성회

# 조국의 희망은 복음 뿐이다

세계 선교와 영적 각성을 위한 은혜의 잔치 2006 CBS 전국 시청자 대성회가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열었다.

나흘 간 열리는 이번 대성회는 첫 날 서울교회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과 서울교회 연합찬양대(지휘 이영조 집사)의 찬양으로 그 열기를 달구었다.

이종운 목사님은 사도행전 1:6-8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는 영적인 나라, 능력 있는 나라, 진리의 나라, 국제적인 나라, 발전하는 나라이다. 기독교는 왜소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의 빛이 되는 종교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인 동시에 명령이며 이 전도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지상 최대의 명령, Great Commission이다. 197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로잔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걸었다. ‘The Whole Gospel, The Whole Church,

The Whole World.’ 이는 온 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이야 말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매체다. 이 나라의 희망은 복음 뿐이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세상은 마땅히 들어야 할 바를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1,200만 성도는 세계 선교를 위한 CBS 방송사역을 밀어주고 끌어주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뜨거운 메시지를 전하셨다.

올해로 개국 52주년을 맞은 CBS는 그간 많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위성 방송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글로벌 복음방송으로 성장해 왔다. 우리는 CBS가 국내의 복음을 사모하는 이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명실상부한 주님의 나팔수가 되도록 후원자로, 또 기도의 동역자로 그 사명을 다해야 하겠다.

이번 대성회는 첫 날 이종운 목사님에 이어 세 분의 목사님들이 강사로 서 1,200만 한국 성도들의 세계 선교의 비전과 영적 각성을 촉구했다.

허숙(편집부)



북한구원 목회자 기도대성회

# 시온의 포로를 돌리소서

지난 6월19일(월) 오후 1시, 전국각지에서 삼삼오오 북한을 위해 기도할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모여 들었다.

이 날 이종운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에서 민수기 11:10-14을 본문으로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지금 우리의 문제도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건국자체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자유민주 체제를 이루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북한의 김정일 폭정 하에 있는 북한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고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저들의 신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북한의 백성을 잊고 계시지 않으신다. 원수에게 빼앗기지도 않는다.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아 나르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듯 목자가 양을 메고

인도하듯 반드시 찾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북한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주님만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고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목회자들은 손을 들고 주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특히 북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전하는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실상과 핍박, 순교에 대한 생생한 증언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소식이였다. 프레스에 머리가 눌러 죽은 성도, 교수형을 집행하는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중보기도하며 숨을 거둔 13살 어린이, 이런 극악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지하교회의 실상은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될 것이다.

이어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요덕스토리’ 공연은 본당 2, 3, 4층을 메운 성도들이 관람했다. 아무도 못 믿게 만드는 북한의 감시 고발 시스템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수용소의 참혹함을 그린 이 공연은 아무 도전도 없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계 6:10) 유태서(편집부)



북한 구원을 위하여

# 북녘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박광일 전도사(디아스포라부 지도)

지난 4월부터 우리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형제들은 고향인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드벌룬에 복음이 담긴 뼈라를 장착해 북한을 향하여 날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인권의 사각지대, 복음의 불모지인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비롯하여 이곳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새 생명을 찾아 미래의 북한복음화의 일꾼으로 준비하고 있는 탈북동포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들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향에 남아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 전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자 출신의 이민복 선교사님이 북한에 애드벌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그 방법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이민복 선교사님으로부터 애드벌룬을 날리는 방법을 전수받은 디아스포라부 형제, 자매들은 올 해 4월부터 강원도 철원 일대와 강화도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애드벌룬에 복음의 내용이 담긴 뼈라와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의 상표들을 넣어 북한으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포라부 형제, 자매님들은 벌써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30개의 애드벌룬에 복음이 담긴 30만 장 이상의 뼈라를 넣어 띄어 보냈습니다. 이들은 한 개의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고향인 북한으로 보내곤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의 형제, 자매들이 보내는 복음의 소식이 애드벌룬을 타고 복음의 불모지인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부모, 형제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세계기도일 특별 기고

#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愛國)'이다

김재진 목사(서울교회 협동목사)



6월에는 조국을 위하여 몸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이 있고, '6.25 동란'이 발발한 날이 있다. 따라서 참된 '애국'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참된 '국가관' 혹은 '애국(愛國)'의 의미는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상관관계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하면,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제1실체'이고, '국가'는 이러한 구성요소들로 결집된 '제2실체'라고 한다. 즉 '개인', '가족'이 없이는 '국가'도 존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사랑'은 실질적으로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혹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군가(軍歌)'도 '부모형제 나를 믿고, 곧 자신이 국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잠을 이룬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와 상응하게 토마스 아퀴나스(Th. Aquinas)도 "국가의 최고 목적이자 인간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 곁에서 정복(淨福)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에 상응하게, 요한 기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고 증언한다.(1요

4:19)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요 10:11). 참되고 올바른 '국가'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애국'도 세속적 '국가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굴복'이나 보이지 않는 사변적인 '국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헌신적 사랑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 눅 10:27)고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참된 사랑은 사변적인 '국가제도'나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참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고, 참된 메시야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Christus pro nobis'(참고. 롬 5:8)이듯이, 참된 국가는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가이고, 따라서 진정한 애국도 참된 이웃 사랑일 수밖에 없다. 즉 나라를 위해 일하고 희생하고 세금내고 법을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외에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연 현 정부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국민의 영혼과, 영적 평안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이제 우리 서울교회 교우들은, 우리나라는 잘되고 다른 나라는 못되어

도 괜찮다는 배타적 애국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일,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한 순간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 불치의 병마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us' 함께 관심을 갖고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애국'이다.

## 예배당을 지역사회에 개방

우리교회는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사명을 갖고 다른교회를 섬기려고 힘쓰고 있다. 도서실을 개방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강남OCU(예비역 기독교교회)모임을 비롯, 한기총 여성합창단(목요일), 장애인합창단, 장로교신학회, 복음신앙동지회, 호산나학교, 한남CBMC소그룹 등 크고 작은 정규 모임들이 계속되고 있다.

###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6일(월) 선교사 후보 2차 면담, 27일(화) 총회 표준 주석 집필자 모임, 29일(목) 복음신앙동지회, ALCOE VI 보고대회, 30일(금) 웨스트민스터 동창회 신학심포지움 준비위, 총회 주제 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 이사: 원용범 집사, 김영희 집사(3교구) 서초구 양재동 116-7 T.578-4728

■ 주간식당봉사: 비회전도회(6월25일) 마리아 전도회(7월2일)

■ 금주의 식사제공: 권강철 집사, 유종숙 집사 가정 (결혼 감사하며) 장경술 성도, 권원순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아름다운 섬김의 발걸음들

이영주 집사(6교구)

올해는 흥해작전과 함께 진행된 김치세미나에서 더욱 부지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 군병들답게 씩씩하기만 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 나오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임을 또 한 번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만나움을 담당하며 여러분들의 손길이 아니라면 저는 벌써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이번 김치세미나에서도 여러 권사님들께서 온갖 달란트를 동원

하시어 맛있고 멋있는 상차림을 해주시며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시며 뒷마무리까지 해주시며 젊은 집사님들은 조를 잘 편성해서 참석자들을 섬기시어 아름다운 김치세미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동아시아에서 오신 목회자 여러분들께서는 음식 하나하나에 사랑이 넘쳐나서 감히 짓가락이 안 간다고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정성껏 장만한 것 뿐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 모두 하나님의 카메라에 멋지게 찍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흥해작전 승전을 감사합니다
2. 피택집사·권사 교육과정에 은혜 충만토록
3. 북한주민 구원을 위한 세계기도일(6월25일)에 많은 성도의 기도가 함께 하도록
4. 호산나 복자법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5. 맥추감사절에 큰 감사있기를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